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념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의 창립 35주년이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정 30주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협회는 지난 세월 동안 각 지역의 민족문화 단체들을 결속시키며 큰 길을 걸어왔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I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on its 35th anniversary!

This milestone carries special significance for our entire nation.

It is symbolic that the Association’s anniversary coincides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both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ver the years, the Association has come a long way in uniting ethnocultural organizations across all regions of the country and today stands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and respected organizations in Kazakhstan. As an active member of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it consistently implements dozens of social, educational, charitable, and volunteer initiatives each year, all aimed at strengthening national unity and harmony.

A vital mission of the Association remains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culture and language, fostering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developing youth movements, and supporting Korean media and artistic groups – including the Republican State

또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일원으로서 매년 수십 건의 사회·교육·자선·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민 단합과 화합을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사명은 민족 문화와 언어의 보존과 확산, 세대 간 계승의 강화, 청년회 발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과 《고려일보》를 비롯한 고려인 언론과 다양한 문화예술단 지원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언제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문화적 다양성 발전을 위한 모든 구상과 프로젝트를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기념일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노동과 재능,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의 촉매이자, 고유한 문화를 사랑하고 카자흐스탄에 충실한 세대들이 함께 써 내려온 역사입니다.

협회의 업적은 우리나라의 힘이 곧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 공동의 창조적 노력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앞으로도 번영을 이어가며 새로운 과제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모든 포부와 계획이 성공적으로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앞으로도 평화와 화합의 기치 아래 우리의 공통된 집인 독립 카자흐스탄의 굳건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존경을 담아,
마라트 아질하노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부의장

Academic Korean Theater and the newspaper Koryo Ilbo.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has always supported,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initiatives and project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hich enrich the cultural diversity of our society.

This anniversary is a celebration for everyone whose dedication, talent, and hard work have contributed to the Association’s growth. It is a story of generations united by love for their culture and loyalty to Kazakhstan. Your achievements are living proof that the strength of our country lies in its cultural diversity, mutual respect, and shared creative effort.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we wish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continued prosperity, ambitious new projects, and the successful realization of all your endeavors, while preserving the unique spirit of unity that defines you. May your efforts continue to serve the cause of peace and harmon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our common home – Independent Kazakhstan!

Sincerely,
Marat Azilkhanov
Deputy Chairman of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조태익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의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창립 35주년 축하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원과 고려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창립 35주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1990년 창립 이래 고려인협회에는 정치, 경제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고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카자흐스탄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인협회의 모범적인 활동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130여개 민족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5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고려극장, 고려일보사, 고려민족중앙회, 고려인청소년센터 등 고려인 주요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12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한편,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말 부임이래 지난 2년 3개월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카자흐스탄 각지의 지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설날과 추석 등 한국 주요 명절을 기념하고, 나우르즈 축하, 가족의 날 등 친교와 화합의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 전통 음식 만들기, 고려인 사진전 등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특히 고려인 젊은 세대들에게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행사들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from H.E. Cho Tae-ick,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35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Dear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compatrio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yself,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35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Since its foundation in 1990, the Association has played a vital role in unit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community in Kazakhstan, engaging people of all generations in all fields ranging from politics and economics to culture. It stands as a shining example of patriotism, unity, and solidarit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ighly values the Association’s efforts over the past 35 year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Kazakhstan’s 120,000-strong Korean diaspora. At the same time, the Association has served as a living bridge to the ancestral homeland, making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고려인협회에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들에 저를 초대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은 고려인협회의 35주년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35년간의 보다 나은 활동을 설계하는 의미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강제 이주 90주년이 되는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알라타우 신도시에 건설하는 고려인 문화·비즈니스센터인 “K-PARK”가 많은 고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고려인협회의 앞으로 다가오는 35년간 활동의 새로운 중심 무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채유리 회장님과 유능한 임원들의 헌신적인 리더십하에서 고려인 동포사회가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민족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금년에 외교관계 수립 33주년을 맞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협력 관계를 연결시키는 황금다리의 역할을 한결같이 수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우리 대사관은 고려인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고려인 동포 모든 분들의 성공,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Since assuming my post as Ambassador in May 2023, I have had the privilege of witnessing firsthand the Association’s active activities across Kazakhstan. I have been honored to take part in its events that foster unity and preserve the unique Korea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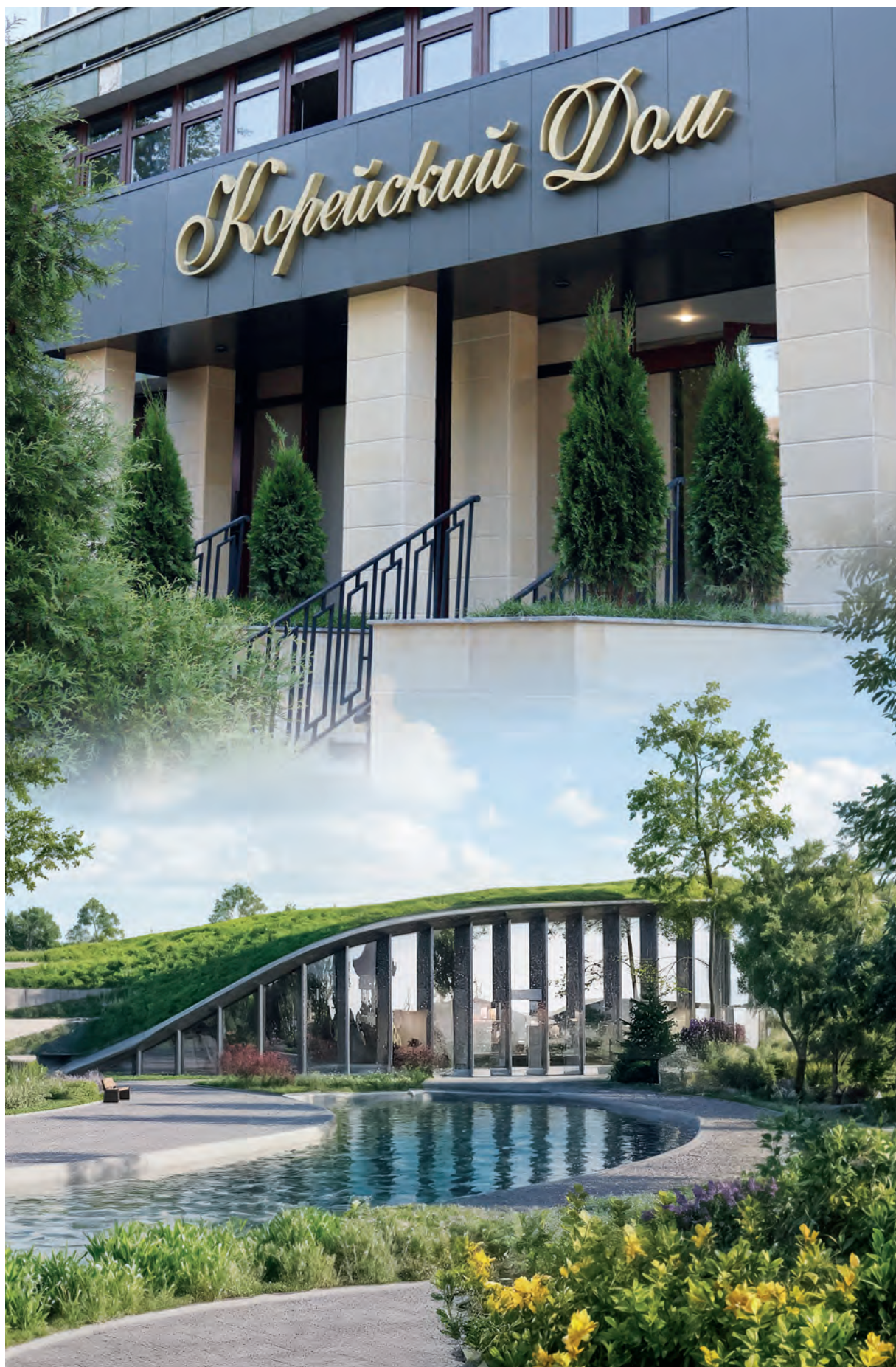
This anniversary is not only a milestone for reflecting on the path already traveled, but also a chance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even greater achievements in the years ahead.

In this regard, I sincerely wish the Association every success to the construction of the K-PARK cultural and business center in the new city of Alatau. I am confident that the center will become an excellent platform for the Association’s future endeavors.

I sincerely hope that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as an integral part of Kazakhstan’s multiethnic society, while also maintaining its important role as a “golden bridge” that deepens the bonds of friendship between our two friendly countries.

For its part,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Association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all my heart, I wish all of you continued success, prosperity, and good health!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민 전체에게 의미 있는 날이며, 그 조화로운 일부로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입니다.

1990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탄생한 협회는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협회의 초석을 다진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성과와 업적은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그분들께서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협회를 거쳐 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협회는 삶의 불가분의 일부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성공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과 영감을 주는 문화적·정신적 원천이 되었습니다. 협회는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회의 35년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냈고, 카자흐스탄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소중한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며, 카자흐스탄 땅에서 고려인들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 후대에 전해주시는 분들, 민족의 단합

Dear compatriots, dear friends!

This year marks the 35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 a significant milestone not only for our community but for the entire multiethnic people of our country, of which the Korean community is an integral part. Established in 1990, at the dawn of Kazakhstan’s independence, our Association has grown and developed hand in hand with our nation. I bow low to all those who stood at its origins – they can rightfully be proud of its achievements.

Over these years, thousands of people have found their path through the Association. For many, it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life; for some – a successful launching pad; for others – a source of strength, inspiration, and cultural enrichment. At every stage, the Association has brought people together and opened opportunities for growth.

The 35-year history of the Association is



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당당하고 명예로운 대표자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채 유리 안드레예비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of our people. Throughout this time, we have accomplished much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Kazakhstan. As we celebrate this milestone, we honor the memory of our ancestors, reflect on the journey of Koreans on Kazakh soil, and look confidently toward the future with new plans and aspirations.

With deep respect and gratitude, I sincerely thank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who has helped preserve and pass on our cultural heritage, who has upheld our unity, and who has represented the people of Kazakhstan with dignity. I wish you all good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With profound respect,
Yuri Tskhay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역사

History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 (PAKKLK)』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조짐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주권 선포 및 독립 선언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던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서 탄생했다. 1989년 알마아타(현 알마티) 시 및 여타 주도(州都)들에 형성된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던 이들로 구성된 모임들은 고려인 문화센터의 창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공화국 민족문화센터’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해당 민족의 전체인구 중 50% 이상의 인원으로부터 단합된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했는데, 이 시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수는 약 10만 3천 명이었다.

1990년 3월 17일, 알마아타 시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창립대회」가 개막되었다. 창립대회 결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의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협회장으로 한 구리 보리소비치(Хан Гурий Борисович) 교수가 선출되었다.

The Republican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of Kazakhstan (RAKCCK) emerged at a turning point in history – on the eve of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proclamation of Kazakhstan’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In 1989, initiative groups of the Korean community in Almaty and other regional centers began establishing Korean cultural centers. At that time, about 103,000 Koreans lived in Kazakhstan.

On March 17, 1990, the Founding Congress of Koreans of Kazakhstan was held in Almaty, where it was decided to establish the Republican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of Kazakhstan (RAKCCK). Professor Guriy Khan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According to its charter, the Association was created as a public organization uniting Korean cultural centers and associations across the country. It aimed to represent and promote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ests of

당시 채택된 정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PAKKLK)』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문화센터들 및 협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사회단체로 규정된다. 또한 본 협회의 활동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고려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경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PAKKLK)』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AK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3월 1일 나자르바예프 N.A.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의 주도 아래 「카자흐스탄 민족회의(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가 발족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센터 공화국 협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서 독자적 형태를 갖춘 본 사회기관의 창설 과정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4년에는 18개의 주, 4개의 시, 16개의 군 소재 고려인 문화센터들과 수십 개의 1차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또다른 특별한 자부심으로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신문 「고려일보」를 꼽을 수 있다. 독자적인 고려인 문화를 상징하는 이 두 기관들이 한때 처했던 존립 위기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도움으로 극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이들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간의 협업

the korean pop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Kazakhstan. Later, the organization was renamed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KK).

On March 1, 1995, on the initiative of the First President of Kazakhstan, Nursultan Nazarbayev,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was established. RAKCCK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creation and ongoing work of this unique institution, which serves as a consultative and advisory body to the Head of State.

By 1994, Kazakhstan already had 18 regional, 4 city-level, 16 district-level, and dozens of grassroots Korean cultural organizations.

The community takes special pride in the Republican State Academic Korean Theater and the newspaper Koryo Ilbo. These unique institutions survived in large part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hich established a systematic partnership with them.

From the very first generation of settlers, Koreans have sought to express gratitude to the kazakh people. This gratitude was not just expressed in words but also enshrined in memorials honoring the solidarity shown by kazakhs, who, despite their own hardships, extended a helping hand to koreans and other deported peoples.



은 체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 1세대부터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들은 그들을 받아준 카자흐인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그러한 진실되고 깊은 감사의 감정을 단순히 형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자신들 또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과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그들이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말이다.

2012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주도 하에 우슈토베 시와 우랄스크 시에 모든 강제이주 민족들이 카자흐 민족에게 헌정하는 감사의 기념비 「카작 할크나 므 알ғыс («Қазақ халқына

In 2012, on the initiativ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KK), monuments of gratitude titled “A Thousand Gratuities to the Kazakh People”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were unveiled in the cities of Ust-Tobe and Oral. These memorials symbolize the enduring legacy of Kazakhstan’s multiethnic harmony. Since then, similar monuments have been erected across many other regions. In 2027, to mark the 9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resettlement in Kazakhstan, a major gratitude memorial will be inaugurated at the K-PARK cultural and business complex.



мың алғыс», - 카자흐 민족에게 큰 감사를)가 세워졌다. 이 기념비들은 다민족 카자흐스탄의 귀중한 역사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다른 여러 도시들에도 추가로 세워져 있다. 2027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거주 90주년을 맞아 현재 건설 중인 문화·비즈니스 센터 K-Park부지에 감사 기념비가 세워질 예정이다.

유한책임회사 「Kazakhmys Holding」의 이사회장 오가이 에두아르드 빅토로비치, 주식회사 「Kaspi KZ」의 이사회장 김 바체슬라브 콘스탄티노비치, 주식회사 「Central-As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의 대표이사 강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종합지주회사 「Lancaster Group」의 이사회 임원 박 유리 에두아르도비치 등 저명한 카자흐스탄의 사업가들이 고려인 사회운동의 발전에 큰 지원을 해 주었다. 이 분들의 후원이 본 협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기에 그 역할과 노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rominent kazakhstani entrepreneurs have mad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movement, including:

Eduard Ogay – Patron,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JSC “Kazakhmys Copper”;

Vyacheslav Kim – Patron,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Kaspi.kz”, Shareholder “Alatau City Bank”;

Sergey Kan – Patron,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AKK,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JSC “CAEC”;

Yuriy Pak – Patron,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Lancaster Group”

With their support, the Association has grown steadily, and their role is hard to overestimate.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역대 회장단

한 구리이 보리소비치 (1990~1995). 그의 지도 아래 협회는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 기반을 다졌다.

채 유리 안드레예비치 (1995~2007). 이 시기 협회는 성공한 기업인, 사회·정치 인사, 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키며 지역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향후 발전을 위한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2004년에는 협회의 상징적 공간인 '코리안 집'이 문을 열었다.

김 로만 우헤노비치 (2007~2017). 이 시기 협회는 국가적 과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기치 아래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협회의 활동 영역은 순수한 디아스포라적 관심사를 넘어섰으며, 국제 교류가 확대하고 지역과의 체계적인 협력도 구축되었다.

오가이 세르게이 겐나지예비치 (2017~2022).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협회의 중요한 활동 방향 가운데 하나는 국제 교류를 심화하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신 유리 게르마노비치 (2022~2024). 새로운 사회 활동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으며, 기업 및 각종 단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2025년초부터 다시 채유리 안드레예비치가 협회를 이끌고 있다. 이는 협회가 가까운 장래에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K-Park문화·비즈니스 센터 건립, 2027년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거주 9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야심 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시기에 협회를 이끌 책임자는 바로 이러한 리더라고 본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협회의 주요 활동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국민의 유기적인 일부로 발전시키고, 뛰어난 인물과 지도자들, 그리고 전체 고려인 민족을 결집시키는 데에 있다.

President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Guriy Khan (1990–1995) – Under his leadership, the Association established itself as a socio-political organization.

Yuriy Tskhay (1995–2007) – During this period,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brought together business leaders, cultural figures, and public personalities, strengthened its regional presence, and built a sustainable economic base. In 2004, the Association opened the Korean House.

Roman Kim (2007–2017) – The Association became actively involved in nationwide initiatives under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Its activities expanded beyond purely ethnic concerns, and international ties and regional networks were developed systematically.

Sergey Ogay (2017–2022) – Focused on engaging younger generations in community lif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epened,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serving as a vital “bridge”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Yuriy Shin (2022–2024) – Introduced new mechanisms in public work, strengthened relations with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Yuriy Tskhay (since 2025) – Returned to lead the Association during a crucial stage, with major projects ahead,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K-PARK and preparations for the 90th anniversary of Koreans’ settlement in Kazakhstan in 2027. Members of the Association believe that his leadership is essential to mobilize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ese ambitious goals.

Over the past 35 years, much has been achieved, yet much remains to be done. The Association’s core mission i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Koreans in Kazakhstan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 uniting outstanding individuals, leaders, and the entire Korean community.

Астана қаласындағы корейлердің этномәдени бірлестігі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Астаны



1989년 10월 쉐리노그рад(현 아스타나)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교사, 의사, 대학생, 공직자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이들이 100명 이상 참가하여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고려인 민족 문화 센터의 창설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스타나 고려인 민족 문화센터가 창립되었고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가장 활발한 지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단체의 초대 회장은 원가이 알렉산드르 드미트리예비치(Вонгай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가 맡았다. 이후 1990년에는 김 바실리 하리토노비치(Ким Василий Харитонович), 1995년에는 리 바체슬라브 니콜라예비치(Ли Вячеслав Николаевич), 2000년에는 김 알렉산드르 겐나지예비치(Ким Александр Геннадьевич)가 연이어 단체를 이끌었으며, 2024년부터는 최 예브게니 보리소비치(Цой Евгений Борисович)가 선출되었다. 오랜 기간 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단체의 조직·문화·계몽 활동에 크게 기여한 박 로자 미하일로브나(Пак Роза Михайловна)의 공헌 또한 크다.

연합의 주요 활동 방향은 문화·계몽·교육·청소년 활동을 포함한다. 1993년에 설립된 한국어 주말학교를 비롯해 1994년 창단된 고려 무용단 「미선」, 합창단 「청류」, 어린이 합창단 「샘(Родничок)」 등 예술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체스 대회, 스포츠 경기, 청년 포럼 등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연합은 장년층과의 교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단」이 창단되어 있으며, 원로와 참전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대 간 만남, 기념행사 문화 탐방 등도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2002년에 창설된 청년 조직은 단체의 중요한 활동축이다. 청년 회원들은 프로젝트 활동, 각종 경연대회, 포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기명 장학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아스타나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은 시 및 공화국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문화·사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설날, 추석, 가정의 날 등 기념행사, 역사 탐방, 공연과 축제 등이 전통적인 주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수십 년간의 활동을 통해 아스타나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민족문화 보존과 자치적 발전, 다문화 수도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The history of the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Astana dates back to October 1989, when over a hundred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Korean community – including teachers, doctors, students, civil servants, and others – in Tselinograd. Together, they unanimously supported the creation of a Korean cultural center. This marked the birth of the Korean National Cultural Center, which went on to become one of the most active branche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The first chairman of the organization was Alexander Wongai. Leadership was later passed on to Vasily Kim (1990), Vyacheslav Lee (1995), and Alexander Kim (2000). Since 2024, the Association has been led by Yevgeny Tsoi. A key contributor to the center's development has been Rosa Pak, the long-serving Deputy chair, who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organization's cultural,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efforts over many years.

The Association's main areas of focus include cultural, educational, and youth-oriented activities. A Sunday Korean language school, established in 1993, continues to operate successfully. The center also supports several artistic groups, such as the Mison Korean dance ensemble (founded in 1994), the Chen-Ryu

vocal group, and the children's choir Rodnichok. Physical development is also emphasized through chess tournaments, sports competitions, and youth forums.

Another important focus is work with seniors. The association runs a dedicated group called Noin-dan, where elders and veterans actively participate. The center regularly organizes intergenerational gatherings, holiday events, and cultural excursions.

The youth wing of the organization, formed in 2002, plays a crucial role as well. Young members take part in project initiatives, competitions, forums, and educational programs. Named scholarships are also awarded to students who are active participants in the community's life.

The Association maintains strong ties with both municipal and national institutions, fulfilling public social contracts and taking part in cultural and civic initiatives. Its annual events include celebrations of Seollal, Chuseok, Family Day, visits to historical landmarks, concerts, and festivals.

Over the years,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Astana has become a shining and enduring example of community self-organization, cultural preservation, and success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cultural fabric of the capital.



알마티 고려 민족 중앙회

Almaty Korean National Center

「알마-아타 시 고려 문화 센터」가 1989년 6월 21일 설립되었으며, 후에 본 단체명은 「알마티 고려 민족중앙회(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단체의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기 약 1년 전부터 허가이 알렉세이 유리예비치(Хегай Алексей Юрьевич)의 지휘 아래 고려인 사회에서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의 모임은 당시로서는 전무했던, 향후 그들이 조직할 사회연합의 주요 목표와 과제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임해왔다. 이 모임에는 박 일 P.A., 천 V.S., 최 Y.P., 김 A.G., 황 I.P., 황 M.U., 김 F.N., 김 Y.A., 황 G.B., 김 옥려, 최 영근, 김 V.Y., 오가이 V.L., 손영환, 양 원식 등의 고려인 운동 열성 활동원들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본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는 김 아파나시 (Ким Афанасий)가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시기를 거치는 동안 알마티 고려 문화중앙회를 이끌었던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열성 활동원들을 발굴하고 단체를 더욱 더 전진시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노력을 쏟아왔다. 그렇게 고려 문화중앙회의 발전과 활동에 기여를 한 이들은 김 A.G., 천 V.C., 황 M.V., 박 V.M., 리 I.P., 신 B.S., 신 A.A.이다.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의 오랜 회장직은 신 브로니스라브 세르게예비치(Шин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맡았다. 신 브로니스라브 세르게예비치는 고려문화중앙회의 회

장직을 수행하며 본 단체의 활동 및 업무 수준이 현대 환경의 최신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2022년, 「알마티 고려 민족중앙회(러어 약자: AKHC/영문으로 AKNC)」의 회장으로 신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Шин Андрей Антонович)가 선출되었다. 신 안드레이는 제8기 마슬리하트(지방의회) 의원이자 「Shin-Line」 그룹의 회장이다. 세대교체와 함께 중앙회에는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날 알마티 고려 민족 중앙회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민족문화단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원로회. 합창단. 무용단. 체스 동호회. 태권도. 청년부 등 총 31개의 하위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AKNC는 매년 여러 자체 프로젝트들을 주관한다. 그중 대표적인 행사는 음력 설날, 한국문화의 날, 「K-POPSTAR.kz」 축제, 노인의 날, 전승절 등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및 알마티 시 지부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민족 언어의 날, 원탁회의, 도시의 날, 나우르즈 축제,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등이 그 예이다.

알마티 고려 민족 중앙회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 노래와 춤 실력을 통해 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매 프로젝트마다 독창적인 개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고려인의 문화를 보존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다.



The Korean Cultural Center of Almaty was founded on June 21, 1989. It was later renamed as the Almaty Korean National Center (AKNC). Nearly a year before its official founding, a dedicated initiative group led by A. Hegai began developing the core mission and goals of what was then an unprecedented community organization. The group included active members of the Korean movement: P.A. Pak Ir, V. Chen, Ya. Tsoi, A. Kim, I. Hwan, M. Hwan, F. Kim, Yu. Kim, G. Khan, Kim Ok Ne, Tsoi En Gyun, V. Kim, V. Ogai, Son Yen Hwan, and Yan Won Sik.

The first chairman of the AKNC was Afanasiy Kim. Over the years, the center was led by people united by a strong passion to bring in more enthusiasts and to constantly push the organization forward, step by step elevating it to new heights. Among them were A. Kim, V. Chen, M. Hwan, V. Pak, I. Lee, B. Shin, and A. Shin. Each leader made their own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center's development.

For many years, the AKNC was chaired by Bronislav Shin – from 1995 to 2000 and again from 2005 to 2022. His leadership was marked by a modern, forward-looking approach that significantly enhanced the center's operations and relevance.

In 2022, a new generation took the helm: Andrey Shin, a Deputy of the 8th convocation of

the Maslikhat and President of the “Shin-Line” group of companies, became the chairman. With this generational shift came new directions and fresh perspectives for the center.

Today, the Almaty Korean National Center is the largest ethno-cultural organization in Kazakhstan. It encompasses 31 active groups, including a Council of elders, choirs, dance ensembles, a chess club, taekwondo classes, a youth sector, and more.

Every year, the AKNC organizes a wide range of its own projects. The most prominent include: Lunar New Year celebrations (Seollal), Korean Culture Day, the K-POPSTAR.kz Festival,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and Victory Day. In addition to its own events, the center actively participates in initiatives organized by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and the city's branch of the APK. These include Language Day, roundtables, City Day, Nauryz Meyram, and Unity Day, among others.

The leadership and members of the AKNC continue to impress with their creativity, fresh ideas, and musical and dance talents. Each new project brings something unique and meaningful, all while staying true to their core mission – preserving the culture of the koryo-saram.



망그스타우 주 사회연합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조선』'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Mangystau Region «Choson»



1989년 가을, '고려인 민족 문화 연합 『조선』'은 악타우 시에 설립되었다. 본 민족문화 연합의 초대 회장으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 재무관이자 악타우 시 명예시민인 박 안드레이 봉주노비치(Пак Андрей Пондюнович)가 추대되었다. 본 연합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동시에 망그스타우 주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악타우 고려인들은 도시 및 주 다양한 사회행사를 주최하며 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시간, 사건, 사람들(Время, События, Люди)」, 「살아있는 기억(Живая память)」, 「미래를 위하여(Во имя будущего)」, 「기억하고 잊지 않기(Помнить и не забывать)」,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부(Здоровье нации – богатство страны)」 등이 있다. 또한 전국 태권도 대회, 전국 글짓기 경연대회 「나는 카자흐어를 할 줄 알아요(Я знаю казахский язык)」, 「나의 고향 – 카자흐스탄(Моя родина – Казахстан)」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민족문화연합 『조선』은 매년 카자흐스탄의 민족 및 국가 명절과 함께 음력 설날, 추석을 기념한다. 활동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선활동이다. 아동보호소, 미혼모의 집, 양로원을 지원하고, 나무 심기, 학생 후원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족문화연합 『조선』의 회장직을 마제노바-황 라이사 이바노브나 (Маденова-Хван Раиса Ивановна)가 맡아 수행했다. 마제노바-황 라이사 전회장의 지도 아래 연합의 활동은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였으며,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와 대학에서 많은 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현재 『조선』의 회장은 기업인 리 올렉 예피모비치(Ли Олег Ефимович)이며, 그는 본 연합을 앞으로 이끌며 도시 사회 활동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The National cultural center “Choson” was founded in the city of Aktau in the fall of 1989. Its first chairman was Andrey Pak, a distinguished financial expe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an honorary citizen of the city.

Since its inception, the center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Republican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has been a committed participant in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initiatives and events.

The Korean community in Aktau actively organizes a variety of public events at both the city and regional levels and takes part in projects of various scopes. Some of the most notable include: “Time, Events, People”; “Living Memory”; “For the Sake of the Future”; “Remember and Never Forget”; and “A Nation’s Health is the Country’s Wealth”.

Communit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national taekwondo tournaments and essay competitions such as “I Know the Kazakh Language” and “My Homeland is Kazakhstan”, etc.

Each year, the ethno-cultural Association “Choson” celebrates both national and state holidays of Kazakhstan, along with traditional Korean celebrations such as Lunar New Year (Seollal) and the Harvest Festival (Chuseok). Charity work is a central part of the Center’s mission. “Choson” supports the local orphanage, maternity home, and nursing home, and contributes to tree-planting campaigns and initiatives to assist schoolchildren, among other efforts.

From 2006 to 2021, the center was led by Raisa Madenova (Hwan). Under her leadership, the organization reached new heights. Activists of this center became increasingly involved in the region’s civic and social life, launching numer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for students and schoolchildren.

Today, the center is headed by entrepreneur Oleg Lee, who continues to guide “Choson” forward while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public life of the city and the work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the Aktobe Region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의 부흥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김 모이세이 미하일로비치(Ким Моисей Михайлович)를 위시로 한 베테랑 고려인 모임이 『악튜빈스크 주 고려민족문화협회』를 발족하면서부터다. 본 문화센터의 정식 등록은 1992년 7월 22일 이루어졌으며 초대 회장으로 김 모이세이 미하일로비치가 선출되었다.

1997년 악튜빈스크 주 고려민족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악튜빈스크 주 지부(«Актюбинский филиал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로 한차례 형태를 변경한 바 있으며, 이후 2018년 「사회연합 『악튜빈스크 주 고려인 협회(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로 공식 명칭의 재변경과 함께 법적형태 또한 법인으로 바꾸었다.

현재 협회의 회장은 석 유리 아나톨리에비치(Шек Юрий Анатольевич)이다. 고려인들이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다수가 큰 사회적·직업적 성공을 이루어 냈으며 다양한 국가 훈장 및 칭호들을 수상한 바 있다.

협회의 문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는 1995년에 결성된 합창·무용단인 「친선」이다. 「친선」은 2008년 「국민 예술단」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또한 협회 예술부 소속의 그룹 「DDfamily」와 「Chinsonfamily」, 어린이들로 구성된 무용단 「Tansim」 등이 활동하고 있다. 「Tansim」의 솔리스트였던 유가이 안젤리나는 현재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또다른 프로젝트로 주바노브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악토베 시에 세종대학교의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the Aktobe Region was founded in the early 1990s on the initiative of veterans of the Korean movement, led by Moisey Kim. The center was officially registered on July 22, 1992, with Kim serving as its first chairman. In 1997, it became a regional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in 2018 it was reorganized into an independent legal entity – the Public Association “Association of Koreans of the Aktobe Region”. Today, the center is headed by Yuri Shek. Although Koreans make up only 0.17% of the region’s population, many have achieved significant professional success and

have been recognized with state awards and honorary titles.

A key part of the Association’s cultural life is the vocal and dance ensemble Chinson, established in 1995 and awarded the honorary title of “People’s Ensemble” in 2008. Alongside there are the groups DDfamily, Chinsonfamily, and the children’s dance troupe Tansim. One of Chinson’s soloists, Angelina Yugai, is now a performer at the Republican State Academic Korean Theater. Another important milestone was the signing of MOU with Zhubanov Aktobe University to open a local branch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민족문화 사회연합 『통일-아트라우』

**Ethno-Cultural Public Association
«Thonil-Atyrau»**



아트라우 주에서 고려인 사회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역의 고려인 단체는 「구리에프(현 아트라우 주 및 시의 옛명칭) 주 고려인 문화센터 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1994년에는 「아트라우 문화센터」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통일-아트라우』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려인 문화센터의 초대 회장직에는 구리에프 사범대학교 교사 김 나제즈다 콘스탄티노브나(Ким Надежд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가 선출되었다. 그녀는 본 단체의 창설을 위한 고려인들의 통솔에 큰 역할을 하였고 가장 적극적인 회원들로 이루어진 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6년 우제바예바 (최) 마리아 니콜라예브나 (Утебаева (Цой) Мария Николаевна) 회장이 본 민족문화 센터를 이끌며 본 단체를 지역 내 가장 활발한 민족 문화 연합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이후 2010년에는 박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Пак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가 뒤를 이었으며, 2014년부터는 리 류드밀라 발렌티노브나(Ли Людмила Валентиновна)가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아트라우 주에는 약 3천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통일-아트라우』는 대규모 문화·교육·청소년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국가기관, 교육기관 및 해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원료회, 어머니회, 청년부, 「사물놀이-아트라우」, 무용 및 합창·보컬 앙상블들, 합창단 「사랑」, K-POP 그룹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민족문화 연합은 이미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최하여 공화국 차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 중에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한국어 페스티벌, 컨퍼런스 「The Top of success – transformation of ideas」, 카자흐어·한국어 학습을 위한 학술회의, 전국 지능·지식 경연대회, 서카자흐 최초의 K-POP 축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성과는 아트라우 주 마함베트 군 베이바르스 마을에 건립된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의 기념비'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민족과 세대, 지역을 잇는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통일-아트라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 높임,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비즈니스 클럽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The Korean community movement in Atyrau Region traces its roots back to 1991. At that time, the organization was known as the Guryev Association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1994 it was renamed the Atyrau Cultural Center, and since 2010 it has carried its current name, “Thonil-Atyrau”.

The center’s first chair, appointed in 1994, was Nadezhda Kim, a lecturer at the Guryev Pedagogical Institute. Thanks to her initiative, the first active members were brought together and efforts to unite the local Korean community began. In 1996, the leadership passed to Maria Utebayeva (Tsoy), under whose guidance the center grew into one of the region’s leading ethno-cultural organizations. In 2010 she was succeeded by entrepreneur Vladimir Pak, and since 2014 the Association has been headed by Lyudmila Lee.

Today, around 3,000 ethnic Koreans live in the region. “Thonil-Atyrau” carries out large-scale cultural, educational, and youth projects, working actively with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government bod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partners. Its structure includes a Council of elders, a mothers’ council, a youth wing, the Samulnori-Atyrau ensemble, dance and vocal groups, the Sarang choir, and K-POP teams.

The center has initiated many projects that gained recognition at the national level. Among them are the Korean Language Festival held in partnership wit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ference “The Top of Success – Transformation of Ideas”, scholarly exchanges on the study of the Kazakh and Korean languages, national intellectual games, and the first K-POP

festival in western Kazakhstan. A landmark cultural event was the unveiling of a commemorative monument in the village of Beybarys, dedicated to the Kazakh people’s generosity and support. These and many other initiatives have become true bridges connecting ethnic groups, generations, and regions.

Looking ahead, the Association is focused on expanding its media presence, strengthening partnerships, and energizing its business clubs.





카라간다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the Karaganda Region



1989년9월, 카자흐스탄카라간다에서 처음으로 『카라간다 주 고려인 민족문화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공식 등록을 마쳤다. 창립 초기부터 김 릴리야 미하일로브나(Ким Лилия Михайловна)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수년간 센터를 이끌어왔다. 본 문화센터가 주최한 첫 대형 행사는 1990년 8월 중앙 문화휴식공원(Центральн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에서 진행된 고려인 문화의 날이었다. 본 행사의 실현을 위해 카라간다 출신의 감독 김 베니아민(Ким Вениамин)과 고려극장 소속의 「아리랑」 무용단이 초빙되었으며, 행사는 카라간다 지역 고려인 사회의 단합과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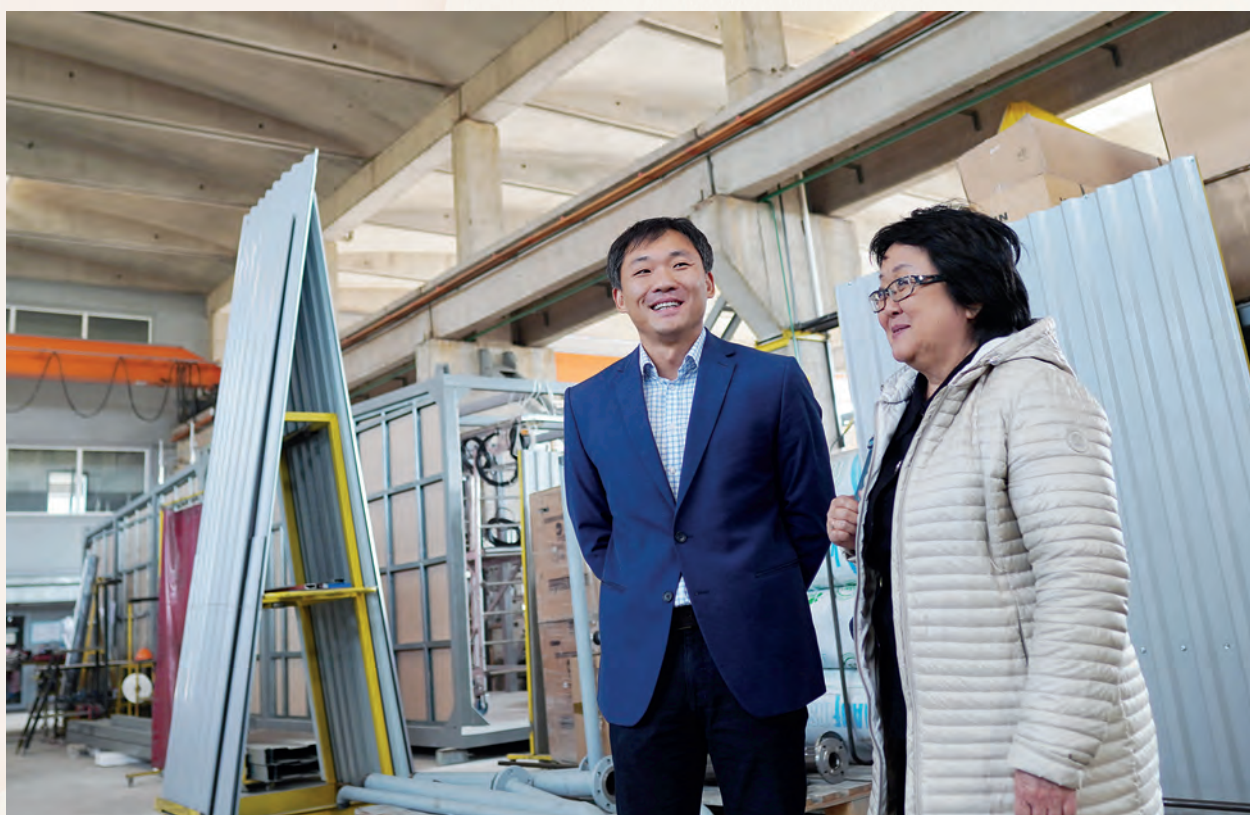
지난 35년간 카라간다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하에서 가장 활발하고 눈에 띄는 지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부터 본 단체가 보유한 주요 예술적 자산으로는 국민 예술단 「무궁화」, 노전사 합창단, 성인 및 어린이 무용팀 「기쁨」, 성인/어린이 사물놀이패 「사연」, 등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합창단은 특히 지역 행사에서 꾸준히 공연해왔으며, 원로 예술인들은 현재도 존경받는 인물로서 문화 행사에 초청받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용단과 사물놀이팀의 단원들이 한국과 알마티에서 연수 기회를 얻고 있으며, K-POP 동아리는 현대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경연대회와 페스티벌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카라간다 고려인 문화 센터는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나우르즈, 전승절, 독립기념일, 수도의 날 등 국가 및 민족 기념일과 관련된 주 및 도시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김치 축제, 어린이 축제 「우리라는 말 속엔 10만 개의 내가 있다」, 청소년 리더십 포럼, 한복 패션쇼 「한복 파티」, 설날·추석·한식 등 한국 전통 명절도 성대히 기념하고 있다.

카라간다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은 테미르타우, 샤흐틴스크, 사라니, 아바이 지역에도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25년6월에는 발하쉬 지부가 창설되었다. 발하쉬 시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발하쉬 지부는 채 알렉산드르(Цай Александр)가 이끌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n September 1989, the first Regional Korean Cultural Center was established in Karaganda, and by December of that year, it had been officially registered. Since its founding, the Association has been led by Lilia Kim.

The Center's very first large-scale event was the Day of Korean Culture. In 1990, activists of the Cultural Center, together with director Veniamin Kim, organized a festive concert in the city's Central Park of Culture and Leisure, featuring the Arirang ensemble of the Korean Theater. The celebration brought together active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city.

Over the past 35 years, the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Koreans in the Karaganda Reg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prominent branche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Since 1990, it has fostered creative groups under the People's Ensemble Mugunghwa, including the dance troupe Kippum and the samulnori percussion group Sayon. That same year, a Veterans' Choir was formed. For many years, its members performed at city concerts and center events. Today, these honorary veterans are welcomed guests and cherished audience members at every cultural projects.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s well as with the Embassy and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dancers and samulnori performers have had opportunities to train both in South Korea and in Almaty, honing their artistic skills. A K-POP group from the center regularly competes in contests and festivals dedicated to contemporary Korean culture.

The Center plays an active role in citywide cultural events and in projects of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contributing to celebrations of national and state holidays such as Nauryz, Unity Day, Victory Day, Independence Day, Capital Day, and others.

Signature events include the annual Kimchi Festival, the children's festival "In the Word We – a Hundred Thousand I's", youth gatherings, the Hanbok Party traditional costume show, as well as Korean holidays such as Seollal, Chuseok, and Hansik.

Branches of the Karaganda Center have been established in Temirtau, Shakhtinsk, Saran, and the Abay district, where charitable and educational programs are regularly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er's activists.

In June 2025, a new branch was opened in Balkhash.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e Korean Center organized a Korean Culture Day for the city's residents and guests, marking its reopening. The Balkhash branch is headed by Alexander Tsai, offering everyon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it more closely.



아크몰라 주 고려인 민족 문화 연합 「친선」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Akmola Region "Chinson"



콕셰타우 시에서의 고려인 사회 운동은 1990년 8월, 콕셰타우 시에서 주(州) 관할 고려 문화 단체가 창단되어 시작되었다. 당시 창단을 주도한 인물로는 콕셰타우 양계조합의 사장이었던 최 니콜라이 뽀트로비치(Цой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농업부 고문 출신의 천 모이세이 알렉세예비치(Чжен Моисей Алексеевич), 카자흐스탄 공훈 킥복싱 코치 허가이 영근 또베노비치(Херай Енген Тобенович)가 있다.

본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는 최 니콜라이가 선출되었으며, 이후 1999년부터는 15년간 천 모이세이가 조직을 이끌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사회연합의 창립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아크몰린스크 주 사법당국을 통해 '고려 문화 센터 「친선」'이 정식 등록되었고, 새 문화센터의 회장으로는 림 류드밀라 콘스탄티노브나(Лим Людмил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가 선출되어 2022년까지 이끌었다. 현재는 2022년 12월부터 랑 올가 미로노브나(Лян Ольга Мироновна)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오늘날 아크몰린스크 주에는 약 1천 500 명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330 여명(실거주 약 170명)이 콕셰타우 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의 고려인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주관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도 수행한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2009년 설립된 한글학교 『샤느락』의 운영, '청소년 리더십' 전국대회 참가, 노인의 날 자선행사, 국가 및 민족 명절 기념 행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쇼칸 왈리하노프대학교, 아바이 므르자흐케토프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프로그램 『툴가타누』에도 참여하고 있다.

문화 센터 산하에는 2022년 한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용단 『미소』, 전통 악기 앙상블 『사물놀이』가 있으며,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The Korean community movement in Kokshetau traces its origins back to August 1990, when the regional Society of Korean Culture was established in Akmola Region. Among its founders were Nikolai Tsoy, General Director of the Kokshetau Poultry Association; Moisey Chzhen, Agricultural Advisor; and Yengen Khagai, honored kickboxing coach of Kazakhstan.

The Society's first chairman was Nikolai Tsoy. From 1999, for 15 years, the Association was headed by Moisey Chzhen. In 2015, it was officially re-registered under a new – the Korean Cultural Center "Chinson," with Lyudmila Lim elected as its chair that same year. She led the center until 2022, after that Olga Lyan became chair in December 2022.

According to statistics, around 1,500 Koreans live in Akmola Region, including 330 people in Kokshetau – though in practice the active number is closer to 170. Despite its small size, the community plays a vibrant role in the region's public life, carrying out cultural and educational initiatives.

Notable projects include Korean language courses offered through the Shanyrak school, established in 2009;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competition "Young Leader"; charity drives for the Day of the Elderly; and cultural programs marking national and state holidays. In recent years, the center has also signed memorandums of cooperation with Shokan Ualikhanov University and Abai Myrzakhmetov University t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Korean universities, and has taken part in traveling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s "Tulgatanu" project.

The center is home to the dance group Miso, formed in 2022 from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as well as the traditional percussion ensemble Samulnori.



알마티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Almaty Region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지부인 '알마티 주 고려인 민족 문화 센터'는 신 브로니스라프 세르게예비치(Шин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AKNC) 회장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그는 알마티 인근 지역의 고려인 단체들을 AKNC 산하에 포함시켜, 이들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와 보다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건의에 따라 알마티 주 고려인 민족 문화 센터가 조직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AKNC 부회장을 겸직하던 최 로베르트 빅토로비치(Цой Роберт Викторович)가 선출되었다.

이후 행정 개편에 의해 제티수 주가 신설되고 관할 구역이 재조정됨에 따라 본 조직은 '알마티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었으며, 본부는 코나예프(전 카프차가이)시에 위치하게 되었다.

코나예프시 고려인 문화 연합은 최 이리

나 발렌티노브나(Цой Ирина Валентиновна) (1998~2010년도), 리 넬리 니콜라예브나(Ли Нелли Николаевна) (2011년까지), 옴 니나 니콜라예브나(Ом 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2011~2013년도)가 이끌었다. 2013년부터는 김 갈리나 알렉세예브나(Ким Галина Алексеевна)가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본 단체의 주요 활동 방향은 고려인의 모국어와 전통 보존, 세대 간 문화·교육 활동,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이다. 2013년부터는 고려인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년 위한 '노인대학'이 개설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조국 방문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매년 단오 축제와 김치 축제가 AKNC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The regional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in Almaty Region was established on the initiative of Bronislav Shin, former chairman of the Almaty Korean National Center. He proposed bringing together Korean organizations from the districts surrounding Almaty to make cooperation with the Almaty National Center more convenient. The regional association was headed by Robert Tsoy, who also served as Deputy chairman of the Center.

After the creation of Zhetysu Region and the administrative division, the organization was renamed the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Koreans in Almaty Region, with Konaev (formerly Kapshagai) as its center.

The Korean cultural association in Konaev

was successively led by Irina Tsoy (1998–2010), Nelly Lee (until 2011), and Nina Yem (2011–2013). Since 2013, the chair has been held by Galina Kim.

The center's key priorities include preserving the Korean language and traditions, and carrying out cultural and educational work with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In 2013, a Korean language school was launched.

For the older generation, the Noin Tehak University for Seniors was opened, giving participants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a cultural trip to their historic homeland. Each year,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Center, the Association also organizes the celebration of Dano and a Kimchi festival.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Kostanay Region



‘꾸스타나이(현 코스타나이) 주 관할 소비에트 고려인 센터 「연고지」 (Кустанай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Ён Коди»)는 오늘날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년2월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들은 강 콘스탄진 보리소비치(Кан Константин Борисович), 김 빅토르 아르센지예비치(Ким Виктор Арсентьевич), 김 리지야 미하일로브나(Ким Лидия Михайловна), 남 류드밀라 미하일로브나(Нам Людмила Михайловна), 김 발렌지나 알렉세예브나(Ким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еевна), 오가이 그리고리 안또노비치(Огай Григорий Антонович), 김 아나톨리 그리고리예비치(Ким Анато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김 나탈리아 빠블로브나(Ким Наталья Павловна)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채 발레리 알렉세예비치(Цхай Валерий Алексеевич)가 선출되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전통의 미래를 걱정하던 소수정예의 코스타나이 주 고려인들이었다.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적극적인 지부이자 이후 코스타나이주 카자흐스탄민족회의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본 단체는 아동부터 장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문화·교육·자선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려인 민족문화 센터는 수십 건의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고려문화 축제, 전통 공예 마스터 클래스, 영화 상영, 전시회 등이 있다.

The Kostanay Regional Center of Soviet Koreans “Yon Kodi,” now known as the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Koreans in Kostanay Region,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90. Its founding members included K.B. Kan, V.A. Kim, L.M. Kim, L.M. Nam, V.A. Kim, G.A. Ogai, A.G. Kim, and N.P. Kim. The first chairman was Valery Tskhai. From the very beginning, the activists were deeply concerned about preserving their native language, culture, and traditions in the region.

From its earliest days, the Center became an active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later of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It has been developing cultural, educational, and charitable initiatives, reaching people of all ages – from children to the older generation.

Over the years, the Korean Ethnocultural Center has organized dozens of large-scale events, including Korean culture festivals, traditional crafts workshops, film screenings, and exhibitions. Its activists also take part in charitable projects and humanitarian campaigns together with other ethnocultural associations of the region.

In October 2022, a memorial to the victims of the 1937 mass political repressions was inaugurated – a deeply significant event for the local Korean community. Honoring the memory of ancestors deported from the Russian Far East remains crucial to the center’s mission. Thanks to the activists, the city also saw the creation of the “Alley of Friendship” – a symbol of unity and mutual support among peoples.

This year, the Center came under the leadership of entrepreneur Roman Kim, who succeeded Ulyana Kim. Roman Kim is a second-generation activist of the center: in 2014, his father, Igor Kim, served as chairman for six years and continues to support the organization’s work to this day.

With every passing year, the center broadens the scope of its initiatives, strengthens ties with loc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nd inspires more and more young people to take an active role in community life.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Kyzylorda Region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는 1989년 10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본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민족문화 연합들 중 하나이다.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는 신문 「뿌찌 레니나(«Путь Ленина», - 레닌의 길)」의 주필 한 예브게니 하리또노비치(Хан Евгений Харитонович)가 선출되었다. 그의 열정 어린 주도 하에 주일학교 한글교실이 개설되었으며, 크즐오르다 시 소재 5곳의 학교 및 2곳의 유치원에 한글공부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스탄의 국경일과 민족 명절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나우르즈, 카자흐스탄 독립기념날, 전승절,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등이 있다. 또한, 협회는 매년 한반도 독립운동가 홍범도와 계봉우를 기리는 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어 경시대회, 체스 토너먼트 등도 주관한다.

본 협회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및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다.

크즐오르다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 있어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이 크즐오르다를 방문하여 고려인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한다.

이에 크즐오르다 주 고려인 협회는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협회 산하에는 한민족 전통 예술 스튜디오 「단울림」, 합주단 「사물놀이」, 민요 합창단 「할머니」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춤과 노래, 공연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안 엘레나 유리에브나(Ан Елена Юрьевна)가 이끌고 있다.

On October 28, 1989, one of the first regional Korean associations in Kazakhstan was established in Kyzylorda. Its founding chairman was Yevgeny Khan, editor-in-chief of the newspaper Lenin's Path. At his initiative, weekend schools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were opened in the city, as well as groups in five schools and two kindergartens to help preserve the language among children.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Kyzylorda Region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cultural and public events marking both state and national holidays of Kazakhstan. These include the celebrations of Nauryz, Independence Day, Victory Day, and the Day of Unity of the People of Kazakhstan. In addition, the center annually organizes exhibitions and campaigns honoring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Hong Beom-do and Gye Bong-woo, as well as Korean language competitions, chess tournaments, and other events.

The organization works closely with the Consulate General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ing out many meaningful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projects together.

Kyzylorda holds a special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s in Kazakhstan. Many foreign visitors, including guests from South Korea, come here to learn more about the everyday lives of koryo-saram. The Association warmly welcomes these visitors, offering cultural programs and artistic performances.

The center is home to the Tanulim Studio of Traditional Korean Arts, a samulnori percussion group, and the senior vocal ensemble Halmoni. These groups regularly delight audiences with new dances, songs, and performances.

Today,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Kyzylorda Region is led by Elena An.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민족 문화 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Pavlodar Region



1993년 본 단체는 「파블로다르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초대 회장직은 파블로다르 트랙터 공장 설계 사무국장 리 레브 바실리에비치(Ли Лев Васильевич)가 맡았다.

1995년 「파블로다르 고려인 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파블로다르 주 지부의 구성원이 되었다. 1997년에는 조직 개편을 거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파블로다르 주 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파블로다르 주 고려인 협회 소망(«Somang»)'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부터 박 류드밀라 바체슬라보브나(Пак Людмила Вячеславовна)가 본 단체를 이끌고 있다.

해마다 「파블로다르 고려인 문화센터」는 한 민족의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행사로는 설날, 뽀빠로데이, 에트노(민족) 페스티벌 '하나 된 가족', 한글날 등이 있다.

고유 사업 외에도 본 단체는 지역 사회 활

동에 적극 참여하며 여러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트레이닝,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민족사 수업, 기념일 공연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민족운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2000년에는 문화센터 산하에 청년회가 설립되었으며, 활동가들은 시(都市)의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주(州) 청년회 '아상블레야 자스타르(Ассамблея Жастары)'와 전국 고려인 청년협회(MDK) 등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한국 교육원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활동 덕분에 파블로다르 고려인 문화센터는 한국어 교사 연수·각종 문화 행사·교육 세미나·견학·경연대회·청소년 및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ty in Pavlodar dates back to 1993, when the Pavlodar Korean Cultural Center was officially registered. Its first leader was Lev Lee, head of the design bureau at the Pavlodar Tractor Plant.

In 1995, the center joined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and in 1997 it was reorganized as a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in Pavlodar Region. Today it is known as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Pavlodar Region "Somang."

Since 2021, the center has been headed by Lyudmila Pak.

Every year, the Pavlodar center hosts a number of large cultural events. Among the most notable are Lunar New Year (Seollal), Pepero Day, the "In One Family" ethnofestival, and Hangul Day celebrating Korean writing, along with many others.

Beyond its own projects, the Association is actively involved in the city's cultural life and collaborate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choolchildren and students, it regularly organizes training sessions, workshops, masterclasses, history lessons, and concert programs for significant occasions. Through these activities, young people deepen their knowledge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become engaged in community life.

In 2000, a youth branch was established at the center. Its members participate in volunteer initiatives, regional youth programs such as

Assembly Zhastary, and nationwide youth movements.

The Pavlodar Korean Association also works closely wit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Cultural Center,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lmaty, and the Education Center at the Embassy. Thanks to this cooperation, the center has been able to provide advanced training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as well as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educational seminars, excursions, competitions, and youth leadership programs.





북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 연합 『HANGUG QAZAQSTAN』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North Kazakhstan Region HANGUG QAZAQSTAN



1992년, 북카자흐스탄주에 최초의 고려인 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은 심 펠릭스 알렉세예비치(Сим Феликс Алексеевич)였다. 그는 페트로파블로스크 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회를 단합시키고 문화 센터 운영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1999년 심 펠릭스 알렉세예비치는 공식적으로 문화센터의 회장직을 한 예브게니 빅토로비치(Хан Евгений Викторович)에게 이양하였다. 한 예브게니 빅토로비치 회장은 페트로파블 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활동의 기획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본 단체의 지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주도 하에 북카자흐스탄주 고려인 청년회가 설립되었고, 개설된 한국어 교실은 오늘날까지도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페트로파블로스크의 고려인들과 시민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본 단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AKK) 및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발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식명칭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북카자흐스탄 주 지부」였던 본 고려인 문화센터는 2018년 구조재편을 거치며 '사회연합 「Hangug Qazaqstan」'으로 개칭하였으며, 회장으로 한 알렉세이 예브게니예비치(Хан Алексей Евгеньевич)가 선출되었다. 새로운 구조로 재탄생한 본 단체는 기존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지부'로서의 지위를 변경사항 없이 계승하여 '법인연합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페트로파블로스크의 고려인 인구는 많지 않으며, 센터의 핵심 활동 인원도 5명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행사를 주최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및 북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Hangug Qazaqstan」은 자체 공연단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로 보유한 두 개의 지역 무용단체와 협력하여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In 1992, the first Korean Cultural Center was established in North Kazakhstan region. The initiative came from Felix Sim, who also became its first chairman. He succeeded in uniting the Korean community of Petropavlovsk and laying a strong foundation for the center's future activities.

In 1999, Felix Sim passed leadership to Yevgeny Khan, wh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enter, but also to the social life of the entire region. Under his leadership, the organization launched the Korean Youth Movement of North Kazakhstan, as well as a Korean language class that remains popular to this day among both local Koreans and residents of Petropavlovsk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Thanks to close cooperation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enter has all the resources it needs for active and productive work.

In May 2019, the regional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as reorganized into the Public Association "HANGUG QAZAQSTAN". Its chairman was elected Alexey Khan. The new structure fully inheri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ranch and became pa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lthough the Korean community in Petropavlovsk is small and the center's active team numbers only five people, this has not stopped them from operating at a high level, organizing meaningful events, and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work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HANGUG QAZAQSTAN" does not have its own performing ensemble but collaborates with two city dance groups that include Korean dances in their repertoire.





제티수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Zhetysu Region



제티수 주에서 고려인 사회운동 역사는 1991년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탈디-쿠르간(Талды-Курган)에서 고려인 사회 대표자들의 회의가 열렸으며, 그 결과 인 발렌찌나 바실리에브나(Ин Валентина Васильевна)가 탈디쿠르간 주 고려문화센터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탈디쿠르간 시, 테켈리 시, 카라탈 군과 콥수 군에도 고려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1995년 주 내의 모든 센터들이 통합되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탈디쿠르간 지역 지부가 출범하였다. 2002년부터는 농학박사이자 유한책임회사 <쉬릭스-카라탈>의 대표인 리 블라지미르 레오니도비치(Ли Владимир Леонидович)가 지부를 이끌고 있다. 2018년에는 지부가『알마티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으로 재편되었고, 2022년6월 제티수 주가 신설되면서 현재의『제티수 주 고려인 민족문화 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산하에는 테켈리 시와 예스켈디 군, 콥수 군의 지부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2년5월, 고려인들이 처음 강제이주로 도착한 카라탈 군 바스토베 마을에 카자흐 민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비「카작 할크나 몽 알그스(«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 카자흐 민족에게 큰 감사를)」를 세운 것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2017년부터 현대병원과의 의료 협력, 2016~2019년 FriendAsia 재단과 함께한 저소득층 주택 수리, 2024년 KT와 UCC의 지원으로 개설된 IT 교실 및 코워킹센터「KT ACADEMY」, 2024년 Charm Good Nanum Foundation(치과 지원) 및 «Наследие диаспоры(디아스포라 유산)» 재단 (가스제공 지원)과의 협력 등이 있다.

연합 산하에는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국민예술단「아침노을」, 예술단「제티수 노을」, 장년층 모임「노인단」, 2002년 창립된 청년회「새벽이슬」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public movement in Zhetysu Region dates back to August 1991, when a conference of Korean community representatives was held in Taldykorgan. As a result, Valentina In was elected Chairperson of the Taldykorgan Regional Korean Cultural Center. Korean cultural centers were also established in the cities of Taldykorgan and Tekeli, as well as in the Karatal and Koksus districts.

In 1995, the centers of the region united to form the Taldykorgan regional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Since 2002, the branch has been headed by Vladimir Lee, PhD in Agricultural Sciences and Director of Shygys-Karatal LLP. In 2018, the branch was reorganized into the Public Association “Korean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Almaty Region,” and in June 2022,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Zhetysu Region, it was renamed the “Korean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Zhetysu Region.” Its structure includes branches in the city of Tekeli as well as in the Yeskeldy and Koksus districts.

Key projects include the opening in May 2012 of the monument of gratitude to the Kazakh people, “A thousand Gratuities to the Kazakh people” (Қазақ х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 in the village of Bastobe, Karatal District – the first point of deportation of Koreans to Kazakhstan. Other important initiatives include long-term medical cooperation with Hyundai Clinic (since 2017); renovation of houses for low-income families in partnership with the FriendAsia Foundation (2016–2019); the opening of an IT class and co-working center, KT ACADEMY, in 2024 with the support of South Korean companies KT and UCC; as well as MOUs with the Charm Good Nanum Foundation (dentistry, 2024) and Heritage of the Diaspora (gasification, 2024).

The Association includes the Achimnoul Korean song and dance folk ensemble, the Zori Zhetysu Ensemble, the Noin Dan senior citizens’ society, and the Sebek Isyl youth center (since 2002).

동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East Kazakhstan Region



Шығыс Қазақстан облысының корейлер қауымдастығы (ШҚО КҚ) 1990 жылғы 25 желтоқсанда Өскемен қаласында өңірдегі корей жұртшылығының бастамасымен құрылды. Ұйымның негізін қалаушылардың бірі – ауыл шаруашылығы ғылымдарының кандидаты, доцент, қоғам қайраткері Никифор Сергеевич Кан болды. Оның жетекшілігімен қауымдастық 1990 жылдан 2003 жылға дейін дамып отырды.

2003 жылдан бастап қауымдастықты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Ан басқарды, ал 2004 жылы төрағалық қызметін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Ли атқарды. 2014 жылдан 2019 жылға дейін қауымдастық төрайымы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Кунст (Кан) болды. Қазіргі уақытта ұйымды Арсен Владимирович Тен басқарады.

2004 жылы аз қамтылған отбасылардан шыққан жетім балалар білім алатын «Квансон» Қазақстан-корей колледжі ашылды. 2013 жылы Өскемендегі этноауылда Корей үйі салынды. Сондай-ақ, мәдениет саласындағы маңызды жетістіктердің бірі – шығармашылық ұжымдардың құрылуы. Атап айтқанда, «Торади» ансамблі, «Инсаноре» вокалдық тобы, Семей қаласындағы «Котнаби» («Көбелектер») би ансамблі. 2023 жылдан бастап «Самуллори» барабаншылар ансамблі жұмыс істей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әйелдерден құралған «Ханыль» би тобы да бар.

2018 жылы Семей қаласында Шығыс Қазақстан облысы корейлер қауымдастығының қалалық филиалы ашылды. Бұған дейін, 1995 жылдан бастап қалада дербес этномәдени бірлестік жұмыс істеген болатын. Филиалдың ашылуы Семейдегі корей қауымдастығының өңір мен елдің мәдени өміріне белсенді қатысуына жол ашты.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East Kazakhstan Region was founded on December 25, 1990, in Ust-Kamenogorsk at the initiative of the local Korean community. At its origins stood Nikifor Kan, Candidate of Agricultural Sciences,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figure, who led the organization from 1990 to 2003.

In 2003, the Association was headed by Yevgeny An, followed by Alexey Lee in 2004. From 2014 to 2019, the chairperson was Yulia Kunst (Kan). Today, the Association is led by Arsen Ten.

In 2004, the Kazakhstan–Korea College Kwanson was established, providing education for orphans an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 2013, the Korean House was built in the ethnovillage of Ust-Kamenogorsk. The Association has also made a significant cultural contribu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rtistic groups: the Toradi ensemble, the vocal group Insanore, and the dance ensemble Kotnabi (Butterflies) in Semey. Since 2023, the drumming ensemble Samullori has been active, along with the women's dance group Haneul.

In 2018, a city branch of the Association was opened in Semey. Earlier, since 1995, the city had its own independent ethnocultural associ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branch made it possible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Semey's Korean community in the cultural life of the region and the country.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South Kazakhstan



1989년 카자흐스탄 남부의 심켄트 시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단체의 창립은 현지 고려인 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가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중에는 박 V.N. (Пак В.Н.), 리 V.V. (Ли В.В.), 오마로바 M.I. (Омарова M.I.), 김 V.C. (Ким В.С.), 리 C.P. (Ли Ч.П.), 최 V.E. (Цой В.Е.), 한 P.M. (Хан П.М.), 리판첸 A.H. (Лифанчен А.Н.), 최 N.T. (Цой Н.Т.) 등이 있었다. 초대 회장은 김 블라지미르 세르게예비치(Ким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가 선출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지역 신문 《노비 파트룰(Новый патруль, 새로운 순찰대)》이 발행되었으며, 주필은 당시 심켄트주 카자흐 텔레비전 특파원이었던 리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Л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였다. 또한 센터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민속예술단 「모란봉」이 창단되었다.

당시 남카자흐스탄주(현재 투르키스탄주)에는 1만 1천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노동영웅, 공훈 의사와 교사, 농업 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심켄트 고려인 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주(州)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오랜 세월 동안 매년 한국문화의

날, 설날, 추석, 단오 등 민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회와 전통 공예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또한 주(州) 민족회의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주관하는 여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황 예브게니(Хван Евгений)와 김 드미트리(Ким Дмитрий)의 주도로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하에 비즈니스클럽 「일삼」이 창설되었다. 초대 회장은 황 예브게니 미하일로비치가 맡았다. 현재 클럽은 김 유리(Ким Юрий)가 이끌고 있다.

문화센터는 심켄트 소재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카자흐스탄 대만민국 대사관의 주도로 아우예조프 남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한국어 학습이 심켄트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졌다.

2023년부터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방 유리(Пан Юрий)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2025년 심켄트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오늘날 『남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고려인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 간 화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n 1989, the Korean Cultural Center was established in Shymkent, in the south of Kazakhstan. The initiative came from local koryo saram activists, including V.N. Pak, V.V. Lee, M.I. Omarova, V.S. Kim, Ch.P. Lee, V.E. Tsoi, P.M. Khan, A.N. Lifanchen, N.T. Tsoi, and others. Vladimir Kim was elected as the first chairman.

In its early years, the center launched the newspaper New Patrol, edited by Vladimir Lee, a correspondent for kazakh television in the Shymkent region. Alongside the newspaper,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opened for the public, and the folklore ensemble Moranbon was created. At that time, more than 11,000 koreans lived in the South Kazakhstan region (now Turkestan region). Many were labor veterans, honored doctors and teachers, agronomists, and builders.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Shymkent quickly became a strong link in both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Over the years, the center has regularly hosted major cultural events such as Korean Culture Day, the Lunar New Year Seollal, Chuseok, art exhibitions, and traditional crafts workshops. Shymkent branch has also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projects of both the regional APK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In 2018, the Ilsam Business Club was established under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South Kazakhstan, initiated by entrepreneurs Evgeny Khvan and Dmitry Kim. Evgeny Khvan became its first chairman. In a short time, the business community of South Kazakhstan actively proved itself, including through support for initiatives of the korean public movement. Today, the club is headed by Yuri Kim.

The center also works closely with universities in Shymkent, helping to develop academic and cultural programs. This collaboration includes special lectures and seminar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With the support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azakhstan, the King Sejong Institute for Korean Language Studies was opened at M. Auezov South Kazakhstan State University, making the korean language more accessible to local residents.

Since 2023,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South Kazakhstan has been headed by Yuri Pan. In 2025, he was appointed Deputy Chairman of the Asseble of People of Kazakhstan in Shymkent.

Today, the center continues to grow, evolve, and contribute to the common cause of preserving culture and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잠블 주 고려인 민족 문화 연합 『고려』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Zhambyl region "Koryo"



잠블 주 고려문화센터의 역사는 1990년 1월 27일, 타라즈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민족문화센터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화학박사 후보이자 교사였던 한 옥타브리나 하리토노브나(Хан Октябрина Харитоновна)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97년에는 홍 G.S. (Хон Г.С.), 이어 1998년에는 문 Z.N. (Мун З.Н.)이 회장직을 맡았다. 1999년 6월에는 잠블 주 고려문화센터 「고려」와는 별도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타라즈 지부가 창립·등록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강 라브렌티 아나톨리에비치(Кан Лаврентий Анатольевич)가 선출되었다. 이후 2003년 두 단체가 통합되면서 강 라브

렌티가 통합조직의 회장을 맡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및 사회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통 명절 기념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민족의 날 콘서트, 추석·설날 행사, 한국 문화제,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조직 산하에는 청년운동 「화랑」, 무용단 「아리랑」, 한국어 및 예술 동아리, 그리고 민속·민족학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잠블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고려」는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및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Zhambyl region began on January 27, 1990, with a founding conference in Taraz, where the decision was made to establish an ethnocultural center. Candidate of Chemical Sciences and teacher Oktyabrina Khan was elected as its first chairperson.

In 1997, the center was headed by Hong G.S., followed in 1998 by Mun Z.N. Alongside the activities of the Zhambyl Regional Korean Cultural Center "Koryo", the Taraz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as established and officially registered in June 1999. Its first chairman was Lavrenty Kan, who in 2003 also became the head of the united

structure after the merger of the Taraz branch with the "Koryo" center. Under his leadership, the organization expanded its activities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mong the center's key initiatives are the celebration of traditional holidays and cultural programs, including annual Ethnic Day concerts, Chuseok and Seollal celebrations, the Korean Culture Festival, and the Korean Movie Festival.

The organization also includes the Hwarang youth movement, the Arirang dance group, Korean language courses, amateur art clubs, and a museum ethnographic exhibition.



1990년 서카자흐스탄 주 중심지에서 「우랄스크 고려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초창기에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38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초대 회장으로 김 아리스 아르센티예비치(Ким Арис Арсентьевич)가 선출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문화센터는 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을 이어왔으며, 도시 프로젝트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공화국 차원 행사,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민족문화 단체들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8년, 「우랄스크 고려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서카자흐스탄 주 지부」로 재편되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오늘날 서카자흐스탄 고려문화센터는 매년 열리는 민족 간 친선축제와 국경일 및 민족 명절 기념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설날, 단오, 추석 등 자체적인 명절 행사도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센터는 주 벨라 블라디미로브나(Тю Бэла Владимировна)가 이끌고 있다. 그녀의 취임 이후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청년과 원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김 레브(Ким Лев)가 이끄는 청년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은 주 정부기관과 다른 민족문화 단체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내에서도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The Korean Cultural Center was founded in 1990 in Uralsk, the capital of West Kazakhstan Region. Its first members included 38 activists committed to preserv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koryo saram. The center's first chairman was Aris Kim.

For many years, the center operated under the umbrella of the regional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ctively participating in city projects, events, and joint initiatives with other ethnocultural associations in the region.

In 2018, the Korean Cultural Center was reorganized as the West Kazakhstan bra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and later became the Korean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West Kazakhstan Region.

Today, the Association regularly takes part in annual friendship festivals and concert programs dedicated to national and state holidays. Its members also organize their own traditional events each year, including Lunar New Year (Seollal), Dano, Chuseok, and others.

Since March 2021, the Center has been led by Bela Tyu. Under her leadership, the Association has seen a generational renewal that has brought fresh energy to its activities. She has successfully engaged both dynamic young enthusiasts and experienced community members. The youth wing, headed by Lev Kim, has also become more active under his guidance.

The Korean Ethnocultural Association of West Kazakhstan Region is highly respected by local authorities and fellow ethnocultural organizations. Within the AKK, it is recognized for its strong engagement and dedicated work.



서카자흐스탄 주 고려인 민족문화연합

The Association Koreans in West Kazakhstan Region





공화국 신문 『고려일보』

Republican newspaper Koryo Ilbo



『고려일보』는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로 발행되는 공화국 신문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삶을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그와 더불어 한반도에 관한 기사들과 재외 동포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 『고려일보』는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한민족 신문이며, 2023년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신문은 1923년 소비에트 극동지역에서 창간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이후 『고려일보』는 크질오르다(현 크즐오르다)에서 1938년 5월 15일부터 「레닌기치」라는 제호로 발행을 재개하였다. 초기에는 크질오르다 주에 귀속되어 있었으나, 1954년부터는 공화국 전체의 신문으로 격상되었다. 1978년부터 발행지가 알마아타로 옮겨졌으며 1991년 현재의 제호로 개칭되었다.

한 때 신문은 반일운동의 확장기였고, 강제이주 시기에는 민중과 함께 있었으며, 비옥한 카자흐 땅에서 부활했고,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이룬 시기에도 보존되었고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오늘날 『고려일보』는 단순한 신문을 넘어 시대와 발맞추어 나아가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현대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독자층을 확대하고 있다.

『고려일보』는 여전히 자기 민족과 함께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매체로서 카자흐스탄의 다채로운 정보 공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Koryo Ilbo (translated from Korean as “Korean Daily”) is a republican newspaper published in Korean, Russian, and Kazakh. It covers public,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life of Koreans in Kazakhstan, as well as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diaspora abroad. The publication is the oldest Korean newspaper in the worl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celebrated its 100th anniversary in 2023.

The newspaper was founded in 1923 in the Russian Far East. Its original title was Senbon (“Vanguard”). After the deportation of Koreans from the Far East, the newspaper was reissued in Kyzylorda on May 15, 1938, under the name Lenin Kichi (“Lenin’s Banner”). At first, it was the regional newspaper of Kyzylorda region,

and in 1954 it became republican. Since 1978 it has been published in Almaty, and in 1991 it received its current name.

At different stages of history, the newspaper served as the voice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stayed with the people during deportation, was reborn on the hospitable Kazakh land, and remained necessary during Kazakhstan’s path to independence.

Today it is a fully developed media group, keeping pace with the times and actively using modern technologies, digital platforms, and social networks to promote the culture of Koreans in Kazakhstan and to expand its readership.

Koryo Ilbo continues to stand with its people, remaining in demand and an integral part of Kazakhstan’s multifaceted information space.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극장

The Republican
State Academic
Korean Theater

고려 이동극장은 1932년 극동지역에서 고려인 동교회 연극 동아리를 기반으로 창립되었다. 이는 한반도 밖에서 세워진 최초이자 당시 세계 유일의 고려극장이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극동 변강 고려극장 일부 단원은 크질오르다로, 다른 일부는 타슈켄트로 흩어졌다. 1942년 카자흐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 “관객층 확보와 정상적인 창작 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극장을 크질오르다에서 탈디쿠르간 지역 카라탈구 우슈토베 역으로 옮겼으며, 이때 극장은 ‘탈디쿠르간주 고려 음악·극예술 극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1959년 5월 30일 카자흐 SSR 각료회의의 결정으로 극장은 다시 크질오르다로 이전되었고, 1968년에는 알마티로 옮겨져 ‘공화국 고려 음악회 극장’으로 승격되었다. 2017년에는 ‘아카데미 극장’ 칭호를 부여받았다.

2022년 고려극장은 창립 90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 무대에는 270편이 넘는 연극과 공연 프로그램이 올려졌다. 레퍼토리의 중심은 민족 고려 희곡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및 해외 작가들의 작품이며, 공연은 카자흐어·러시아어·한국어 3개 언어로 진행된다.

고려극장에는 고려 민족예술의 모든 장르가 집약되어 있다. 민속·민족학 앙상블 ‘사물놀이’, 고려무용 발레단, 성악 솔리스트 그리고 극장의 근간을 이루는 연극단이 그것이다. 극장 배우들은 한국, 독일, 영국, 터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국내외 다양한 연극예술 국제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고려극장의 배우 다섯 명은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으며, 열 명은 ‘공훈예술가’ 칭호를, 세 명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인물’ 칭호를, 열여섯 명은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받았다.





The Korean Traveling Theater was founded in 1932 in the Russian Far East, emerging from amateur drama circles in Korean community clubs. At the time, it was the first – and the only – Korean theater in the worl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forced deportation of Koreans in 1937, part of the troupe of the Far Eastern Regional Korean Theater was relocated to Kyzylorda, while another part settled in Tashkent. In 1942, by decision of the Kazakh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the theater was transferred from Kyzylorda to the Ush-Tobe station in the Karatal district of Taldy-Korgan region "to ensure a reliable audience base and normal working conditions." It was then renamed the Taldy-Korgan Regional Korean Musical Drama Theater. On May 30, 1959, a decre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Kazakh SSR moved the theater back to Kyzylorda. In 1968, the troupe relocated once more – this time to Almaty – where it became the Republican Korean Theater of Musical Comedy. In 2017, the theater was awarded the honorary status of "Academic."

In 2022, the theater celebrated its 90th anniversary. Over the decades, it has staged more than 270 plays and concert programs. Its repertoire is built around national Korean drama, as well as works by Kazakhstani and international playwrights. Performances are held in three languages: Kazakh, Russian, and Korean.

The Korean Theater brings together the full range of Korean performing arts: the Samulnori folklore and ethnographic ensemble, a ballet troupe

of Korean dance, vocal soloists, and at its heart – the dramatic company. The theater's artists have earned acclaim at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s in South Korea, Germany, the United Kingdom, Türkiye, Russia, Kyrgyzstan, and many other countries near and far.

Five of the theater's performers have been awarded the title "People's Artist," ten have been named "Honored Art Workers," three hold the title "Honored Work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sixteen are recognized as "Honored Artists."





Youth Movement of Koreans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협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 협회(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이하 청년협회는 1998년 6월28일, 당시 협회장 채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지원 아래 창립되었다. 청년협회의 초대 회장은 진 발레리였다(Валерий Тин).

청년협회의 주요 목적은 인재 성장과 청년 주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조직은 고려인 청년들 사이에서 시민적 책임감, 지도력,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청년협회는 여러 공화국 및 도시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특히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행사로는 『청소년 리더』 경연, K-POPSTAR.KZ, 설날 기념행사, 지식경연 프로그램 『나와 한국』, 『우리의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협회는 아스타나, 알마티, 카라간다, 쉴켄트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000명 이상의 활동가를 결집하고 있다. 그중 약 240명은 '아삼블레야 자스타르(Assambleya Zhas-tary, 청년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The Youth Movement under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was founded on June 28, 1998, with the support of the Association Chairman Yuri Tskhay. Its first chairman was Valery Tin.

The core mission of the movement i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talented young people and to support youth initiatives. From the very beginning, it has focused on fostering civic responsibility, leadership, and cultural identity among young Koreans of Kazakhstan.

The organization actively participates in major national and citywide projects. Some of the most

notable events for its members have been the “Young Leader” competition, K-POPSTAR.KZ, the celebration of Seollal (Lunar New Year), and intellectual contests such as “Me and Korea” and “Our Kazakhstan”.

Today, the Youth Movement is represented in 16 reg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Astana, Almaty, Karaganda, Shymkent, and others. Altogether, it unites more than 1,000 active members, around 240 of whom are also part of Assembly Zhastary (the youth wing of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

비즈니스클럽 DANHAB BUSINESS CLUB



2022년7월 알마티에서 중대형 기업인들을 하나로 모은 비즈니스 클럽 <DANHAB>이 설립되었다. 조직의 발기인이자 초대 회장은 헤가이 세르게이였다.

DANHAB 회원들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잠재적 리더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NHAB은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발전, 비즈니스 환경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여름 캠프 K-Camp, 자선·환경 캠페인, K-PARK 프로젝트 참여 등이 있다.

현재 클럽은 기업인 김 콘스탄틴이 이끌고 있다.



In July 2022, the DANHAB Business Club was established in Almaty, bringing together entrepreneurs from medium-sized and large businesses. The initiative came from Sergey Khegay, who also became the club's first chairman.

DANHAB's members aim to build a strong, unified platform for networking and for nurturing potential leaders capable of guiding their teams to new heights.



The club runs projects that emphasize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ty development, and a stronger business environment. Among them are the K-CAMP summer camp, charitable and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articipation in the K-PARK project.

Today, DANHAB is led by entrepreneur Konstantin Kim.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비즈니스 클럽

Business Club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비즈니스 클럽은 고려인 기업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그 주요 목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사이에서 교류와 협력,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있다.

클럽은 신뢰, 상호부조,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기업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 모임, 교육 행사를 개최하며, CIS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을 통한 국제 파트너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클럽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산하 기구로서, 전문적 성장과 민족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The Business Club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is a community of Korean entrepreneurs established to build business connections, share experience, and foster joint development. Its main purpose is to create a unified platform for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support of new business initiative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of Kazakhstan.

The club is built on principles of trust, mutual assistance, and equality, bringing together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regions. It regularly organizes forums, networking events, and training programs, while also promoting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the Union of Korean Business Clubs in the CIS.

As pa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the Business Club is open to new members who are committed to professional growth and to preserving their cultural heritage.



과학기술협회 『과학』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ociety "Kahak"



과학기술협회 「과학(러시아어 표기명 «Kaxak»)」은 본 과학기술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지지를 받아 1991년 박 I.T., 강 V.M., 박 M.A., 최 S.V., 최 E.I., 유 V.K. 교수들의 주도 하에 전문성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2014년부터 과학기술협회 『과학』의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은 문 그리고리 알렉세예비치(Мун 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가 수행하고 있다. 『과학』의 회원 수는 5백명 이상이며, 그중 각종 아카데미 회원, 박사, 박사후 연구자, 정부 상 수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의 주요 활동은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학술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및 응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출판 활동을 지원한다. 『과학』협회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백과사전과 단행본을 출판하며, 청년들의 해외 연수와 국제 포럼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협회 『과학』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회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학술 단체들과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ociety Kahak was founded in 1991 on the initiative of a group of Korean scholars in Kazakhstan – I.T. Pak, V.M. Kan, M.A. Pak, S.V. Tsoi, E.I. Tsoi, and V.K. Yu – with the suppo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Since 2014, the society has been led by Grigory Mun. Today, Kahak brings together more than 500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of science, PhDs, academicians, and recipients of state awards.

The society's work is focused on advancing science and education. It organizes academic seminars and conferences, carries out research and applied projects, and supports publishing initiatives. Kahak issues a scholarly journal, publishes encyclopedias and monographs, and facilitates internships and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It is als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KOFST, headquartered in Seoul, and actively collaborates with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운영은 합의제와
대표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후원회

협회 후원회의 구성원들로는 10명 이하의 인원이 선출되며, 특정한 인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자격을 부여받는다.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협회 내부 사안들의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발전 전략 및 발전안의 수립 · 연내 행사들의 시행 계획 승인 · 협회장 후보 승인 · 협회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원로회

원로회는 협회의 자문기구로서 협회 대회를 통해 5년의 임기를 기본으로 10명 이하의 구성원들이 선출된다. 원로회는 고려인 사회의 권위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협회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핵심 사안의 논의에 참여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임원회

협회 임원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공동집행기관이다. 본 협회의 임원회의 구성원들로 협회 지부의 제1 지도자들,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훈 대표자들, 회장, 부회장들, 원로회장이 포함된다.

임원회는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활동의 전략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간부회 구성원 승인 · 전문가감정 분석 등과 같은 업무부서의 부설 □ 협회 임원회 구성원의 순환관리 및 신규 선출 등을 담당한다.

임원회는 연중 최소 1회 이상의 모임을 진행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간부회

간부회는 협회 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기구로 협회의 과제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간부회는 협회의 핵심 활동 방향에 관한 권고·건의 사항들을 제출하고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 임원회와 간부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의 지휘 하에 기능한다.

The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llegiality and representation, and includes several key bodies:

The Board of Trustees – a strategic body of up to 10 members, composed of respected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ommunity in Kazakhstan. The Board contributes to shaping the Association’s long-term strategies and development concepts, reviews event plans, nominates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nd considers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he Council of Elders – an advisory body elected by the Association’s congress for a five-year term. It also consists of no more than 10 members. The Council brings together highly regarded figure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scussing the Association’s key issues.

The Executive Board – the Association’s main executive body, which includes heads of regional branches,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ommunity,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and the chair of the Council of Elders. The Board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strategies and programs, approving members of the Presidium, creating analytical and expert units, and coordinating the Association’s activities. Plenary sessions of the Board are held at least once a year.

The Presidium – formed by the Executive Board to ensure the Association’s day-to-day operations. It develops proposals on key areas of activity and manages current affairs. The Presidium and the Executive Board are chair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